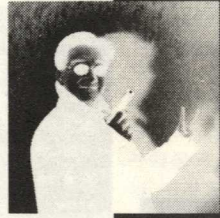


### 마음001

마음001은 서울대학교의 남녀동성애자모임입니다.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이정우에게 연락 하시면 됩니다. (Pager: 015-338-0556) 지난 5월 29일 발족하였으며 2학기에는 학내에서 동성애자 영화제 및 바자회 등을 기획 중입니다. 관악학우 여러분이 보내주신 많은 격려와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마음001은 쉼터형식의 모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레즈비언 상담은 정현수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Pager: 012-844-7137) 마음001의 001은 100을 기준으로 본 우리나라의 인권 수치입니다. 내년에는 001이 002로 수치가 올라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람은 고려대학교의 남녀동성애자모임입니다.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이상훈에게 연락 하시면 됩니다. (Pager: 015-943-4742) 매주 금요일 모임이 있으며 격주로는 컴투게더 마음001과 공동번역모임을 갖습니다. 많은 학우들의 참여 바랍니다. 동성애자 학우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모임에서 개인사항이 외부로 밝혀지는 일은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한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갖는 일, 그것이 행동하는 삶의 첫 걸음입니다. 아무쪼록 안암학우 전체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바랍니다.



### 컴투게더

컴투게더는 연세대학교의 남녀동성애자모임입니다.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이우연에게 연락 하시면 됩니다. (Pager: 015-376-7369) 컴투게더는 동성애자학우들의 정체성을 찾고자 결성된 모임입니다. 얼마전 고려대학교의 서베이 결과, 동성애를 느끼는 경우가 9%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무척 안좋게 나타나 무척 아쉽습니다. 아무쪼록 고대 모임이 잘 진행되길 바라며 학우들의 인식을 바꾸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고대 화이팅!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장번호
	A11	2

1995 THE LESBIAN & GAY STUDENTS' BULLETIN

## 대학동성애자소식



# 대학동성애자소식

시작하며:

지난 5월 29일 창간준비호로 첫발을 내딛은 마음001이 새로운 모습을 갖추고 창간호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대학동성애자소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쁘게도 새 소식지 '대학동성애자소식'은 서울대학교 <마음001>과 연세대학교 <컴투게더> 그리고 새로이 발족하는 고려대학교 <사람과 사람>의 공동 발간물입니다. 각 대학의 남녀동성애자인권모임들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받아야 하는 여러가지 심리적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공동체 모임입니다. 격주로 3개 단체 공동으로 번역-토론 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주에는 각 학교별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동성애자 학우 여러분, 개인적인 사항이 모임활동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는 일은 없으니 두려워 말고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각 단체들은 각 대학의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성적정체성에서 자긍심을 찾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더이상 혼자 아닙니다. 서울대 모임은 이정우(015-338-0556), 연세대 모임은 이우연(015-376-7369), 고려대 모임은 이상훈(015-943-4742)에게 연락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선 명칭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 학보인 '대학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더군요. '동성연애자모임 마음001 결성'. 여태껏 직접 인터뷰를 해놓고도 동성연애자란 말을 듣기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성연애자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동성애자. 이것이 올바른 명칭입니다. 이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 이성연애란 선택적인 삶의 일부일 뿐 결코 한 이성애자의 삶 전체를 대변할 만한 것은 분명 아니라는 점에 누구나 동의하실 겁니다. 동성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힌 신부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성연애자는 아닙니다. 그들은 이성애자신부님들과 마찬가지로 종교적 서약을 지키며 살 뿐입니다. 동성연애자란 명칭은 동성애자의 삶 전체를 개인의 삶에서 일부분에 불과한 성적추구로 치환하게 되는 지극히 모멸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게이하면 '여장남자'(오까마라고 불리는)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모 homo 라는 명칭은 지극히 경멸적인 표현으로 모두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성애자를 헤테로 hetero 라 분류하지 않듯이 우리도 호모라 불리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동성애자들은 호모라는 표현 대신 스스로의 성적 정체성을 찾고 삶의 기쁨을 되찾았다는 자긍심의 표현으로 게이 gay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게이는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들일뿐 이성전환주의자 transgendered (비하적인 어감의 transsexual보다는 transgendered라고 부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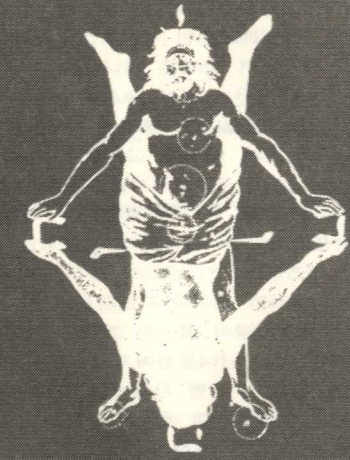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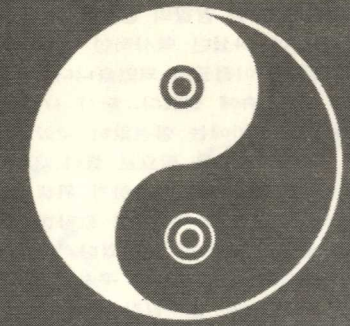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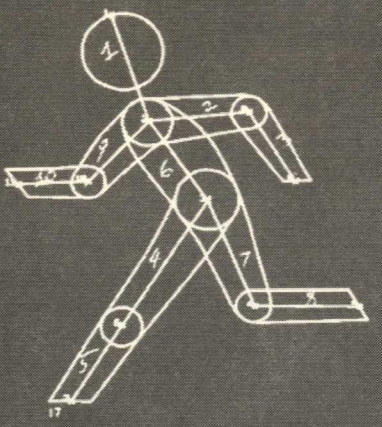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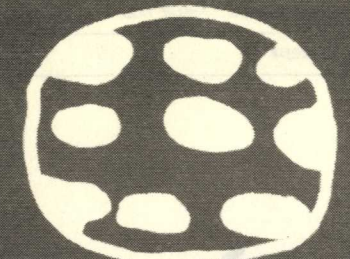
것이 옳습니다.)나 복장도착자 transvestism 와는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달리합니다. 그리고 여성 동성애자를 일컫는 레즈비언은 이미 잘 알려진 바대로 신화에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물론 게이나 레즈비언이라는 외래어보다는 적당한 우리말 명칭을 찾을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시초는 1969년 미국 뉴욕에서의 스톤월 봉기에서 시작 됩니다. '스톤월 인'이라는 동성애자 주점에 대한 경찰의 횡포에 게이들이 돌과 화염병을 들고 맞서 투쟁에 나섰던 역사적인 이 사건은 이후 동성애자 해방운동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1969년 6월, 뉴욕은 시장선거의 열풍 속에 있었다. 당시 시장이었던 공화당원 존 린드레이는 재선되기에는 형편없이 낮았던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희생양을 필요로 했다. <전통적 가치를 수호하는 강력한 가부장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동성애자들에 대한 단속은 손쉬운 방편이 되어주었고 정당한 법적 근거없이 남녀동성애자들은 줄줄이 구속될 판이었다.> 바로 그때 스톤월 인은 세번째 단속대상이었고, 부당한 구속에 대하여 남녀동성애자들은 온몸으로 저항했다. 일주일간 크리스토퍼가는 해방구가 되었고 사태가 진정된 뒤 보름도 안되어 게이해방전선 Gay Liberation Front 이 탄생함으로써 게이해방의 신화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수많은 게이/레즈비언 액티비스트들의 선구적인 노력으로 오늘날 전세계에서 장벽은 하나둘씩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동성애자들의 사회적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의 완년입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그리고 고려대에 모임이 만들어 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가 발족되었습니다. 발족식과 함께 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각종 언론활동은 물론, 여름동성애자인권학교의 성공적인 운영, 대만에서 열린 아시아인 레즈비언 컨퍼런스의 참가, 우리나라 최초의 게이프라이드데이 행사인 동성애자 인권을 위한 '일일호프, 바자회, 베품시장'이 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남녀동성애자모임인 <사람과 사람>이 정식발족을 맞게 되었고, 이번 가을에는 각 대학에서 장터와 바자회, 인디펜던트 영화로서의 동성애자 영화 queer movie 상영도 기획 중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동성애자 학우들이 함께 모여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각 모임들이 갖는 의의입니다. 더이상 우리는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이상 이유없는 침묵과 수치를 강요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의 신변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정신적 피난처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은 무척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남녀동성애자학우 여러분,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하십시오.

찾아보기

- 시작의 글 / 편집자 - 01page
- 찾아보기와 비디오 소개 - 02page
- 잡다한 소식들 / 편집부 - 03page
- 소통은 시작되었다. / 정현수 - 04page
- HELP! / 편집부 - 04page
- 세상사는 이야기 / 누구나 - 05page
- 성적지향성 전환치료의 실제와 윤리 / 이우연 - 07page
-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 발족 선언문 및 우리의 주장 - 09page
- 책소개 / 편집부 - 10page
- 시각문화예술 속의 동성애자문화에 대하여 / 이정우 - 11page
- 광고 / <사람과 사람>, <마음001>, <컴 투게더> - 14page

비디오 소개:

그레타 카메라메이여는 1942년 나치 점령하의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의사였는데, 그 당시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적십자 간호원로서 레지스탕스를 돕고 있었다. 덕분에 그녀의 유모차가 나치의 감시망을 뚫고 레지스탕스에게 무기를 전달하는데 이용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그녀의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정착한 그녀는 평범한 여학생은 아니었던듯 싶다. 카우보이모자를 즐겨썼다는 그녀는 대부분의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마음 설레일때, 고등학교 여자 체육 선생님을 남몰래 짝사랑하게 되었다. "회상해 보건대, 나는 육체적으로는 남자에게 별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남자아이들과의 형식적인 데이트는 계속했죠." 1960년 시민권을 획득한 후에 그녀는 간호원과 군인 모두가 되기로 결심한다. 63년 메릴랜드 대학에서 군 간호장교 양성 프로그램을 마친뒤, 그녀는 독일의 뉘른베르크로 배치된다. 그곳에서 잘 생긴 장교인 하비씨를 만나 결혼한다. 67년 베트남 파견을 자원한 그녀는 전쟁의 가장 처절하고 참혹했던 기간을 그곳에서 남편과 함께 보냈다. 어린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전투부대를 나온후, 그녀는 시애틀 교외에서 근무하게 된다. 덕분에 그녀는 부대에서 일하면서 4명의 아들들을 돌볼 수 있었고, 밤에는 아이들에게 노르웨이의 자장가를 불러줄 수 있었다. 72년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간호장교로서 다시 군에 입대한다. 결혼생활을 드디어 포기한다. 아이들의 양육권은 남편쪽으로 인정되었다. 가족으로부터 벗어나 그녀는 혼자서의 생활을 시작했다. 이혼 수속이 끝나자 이름을 카메라메이여로 다시 바꾸고, 새 삶을 설계한다. 1985년 34,000여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올해의 간호원'에 뽑히고 87년에는 대령으로 진급한다. 워싱턴 대학에서 간호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얼마 지난지 않아 워싱턴 주립군의 간호책임자로 부임하게 된다. 1988년 카메라메이여가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해온 한 친구가 그녀에게 예술가이자 대학 교수인 다이안을 소개시켜준다. 둘은 곧 사랑에 빠졌고, 지속적인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카메라메이여의 군대에서의 야심은 미연방군 최고 간호책임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녀의 탁월한 능력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국방 대학원에서 몇개의 클래스를 받은후 그녀는 진급 심사를 받게 되었다. 군의 일급비밀을 취급하는 자리인만큼 철저한 신분보증을 요구하고 있었다. 인터뷰에서 심사관은 그녀에게 성적성향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정직과 성실의 가치를 믿는 그녀는 망설임없이 분명한 대답을 던졌다. "I am a Lesbian". 결국 이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고 말았다. 7개월 후에 카메라메이여는 탁월한 지도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퇴직시킨다는 공식적인 통고를 군대로부터 받았다. 물론 그녀는 그 조처에 승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램다 법률 변호, 교육재단과 노스트웨스트 여성법률센터의 도움을 받으면서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다. 그러나 결국 군의 결정을 군내부에서 바꿀 수는 없었다. 1992년 6월 결국 명예퇴직을 당한다. "나는 항상 명예스럽게, 나를 환송하는 퍼레이드와 밴드연주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며 전역할 수 있기를 꿈꾸어 왔죠." 바로 그날, 그녀는 탄압에 맞서기로 결심하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1994년 6월 1일 시애틀에 있는 미국 연방 법원은 군이 카메라메이여를 복직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결정은 군 당국에 의해 항소중인 상태라서, 그녀의 법률 투쟁은 아직도 진행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현재 워싱턴 주립군 최고 간호 책임자로서 다시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8월에 열린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 여름학교'에서 상영된 이 영화는 큰 호응을 얻었다. 연재가 이 사회에도 제 2의 카메라메이여가 등장할 날이 올 것이다. 그 전까지 그녀를 우리의 영웅으로 삼는것에 주저하지는 말자. 마지막으로 아직 이 영화를 보지 못했다면 지금 곧장 비디오 대여점으로 달려갈 것을 권한다. '두 여자의 사랑 (원제 Serving In Silence)'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잡다한 소식들

1.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 출범:
 

지난 6월 26일에는 사회단체인 남성동성애자인권모임 <친구사이>, 역시 사회단체인 여성동성애자인권모임 <끼리끼리>, 서울대학교 남녀동성애자인권모임 <마음001>, 연세대학교 남녀동성애자인권모임 <컴투게더> 4개 단체가 모여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를 발족시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발족식에서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는 선언문과 우리의 주장 5개안이 발표되었으며 올해를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의 원년으로 선포함과 아울러 스톤월 합쟁 26주년이 되는 6월 27일의 한주간을 '동성애자 주간'으로 선포하였다. 우리 동성애자들에게는 더없이 의미있는 날이었으며 보다 밝은 동성애자권리의 내일을 가늠케 하는 전환점이었다.
2. 미주지역 친구사이의 댄스파티:
 

8월 11일에는 한인남녀동성애자인권모임인 미주지역 친구사이에서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의 바자회 기금마련을 위한 댄스파티가 클럽58에서 열렸다. 참가기로 예정되었던 한국 측의 대표가 일정상의 문제로 불참하였으나 비디오 메시지로 인사를 대신하였다. 6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2000달러가 모금되었다. 미주지역 친구사이의 현재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다. (대표전화는 장진석: 212-366-5433)
3. 아시안 레즈비언 네트워크 컨퍼런스 참가:
 

<마음001>의 레즈비언 활동가인 정현수는 대만의 타이베이에서 8월 11일부터 14일 까지 진행된 제3회 아시안 네트워크 컨퍼런스에 참가하고 돌아왔다. 올해 우리나라는 처음 참가하였고 열린 조직논의와 활동방향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레즈비언운동에 대한 자료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상황이 각국 간체들과의 교류로 해소되리라 기대된다. (자세한 활동보고는 다음번 소식지를 통해 기사화될 예정임.)
4. '여름동성애자인권학교'의 성공:
 

여름방학을 맞아 8월 12~14일에는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 주최로 제1회 '여름동성애자인권학교'가 개최되었다. 2박3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 학교에서는 '동성애자인권운동에 대하여(강사: 서동진)', '에이즈에 대하여(강사: 오준수)', '시각대중문화예술 속의 동성애문화(강사: 이정우)'의 강의와 조별 토론모임, TV드라마물로 제작된 레즈비언 극영화 '두 여자의 사랑'과 애니메이션 '나무를 심은 사람'의 야외극장상영 그리고 체육대회등의 행사가 있었다. 50여명의 인원이 참가한 본 인권학교는 첫 행사라 예정된 프로그램이었던 '비포 더 스톤월' 상영이 취소되는 등 문제점이 없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매우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어디에서도 맞볼 수 없던 형제애와 자매애를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 성공적으로 치루어진 여름인권학교는 내년 여름에 다시 더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될 것이며 여성문제를 다루는 동아리나 그밖의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신원보증이 확실한 이성애자 학우라면 참가가 허용될 예정이다.
5. 대학로에서의 동성애자 자긍심의 날:
 

9월 3일에는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주최로 일일호프, 바자회, 버룩시장이 열렸다. 아침 11시에서 밤 11시까지 진행된 본 행사는 애초의 걱정과는 달리 별 탈 없이 진행되었으며 미주지역 친구사이의 장진석 씨가 모금된 3500달러(추가된 1500달러는 장진석씨의 개인후원금)로 구매한 바자회 물품을 직접 들고 귀국, 행사에 큰 도움을 주셨다. 바자회에는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여러가지 동성애자인권운동 관련 물품과 서적들,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의 티셔츠 그리고 <끼리끼리>의 티셔츠 등 다양한 물품들을 판매하였다. (현재도 판매 중

이며 문의는 친구사이로. 전화: 3141-7942) 버룩시장에는 각 단체의 회원들이 기부한 중고 물품들이(귀고리, 목걸이, CD, 전동고가구, 머그잔, 직접 만든 팔찌와 목거리 등) 선보였고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어 인기를 끌었다. 한 회원은 바디페인팅 코너로 분위기를 돋우었고, 한 쪽에서는 스톤월 25주년 비디오가 상영되었다. 그리고 폐장 40분전에는 댄스 파티가 열려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해 문을 닫기가 아쉬울 지경이었다.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한국 최초의 게이프라이드데이 gay pride day 로서 기록될 것이다. 내년에는 6월 27일의 동성애자 인권주간에 제대로 된 프로그램으로 보다 발전된 행사가 진행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6. 고려대학교 남녀동성애자인권모임 <사람과 사람> 발족:
 

고려대학교 남녀동성애자모임 <사람과 사람>이 대표 이상훈과 몇몇 뜻있는 고대인들의 노력으로 정식발족하게 되었다. <사람과 사람>의 정식 발족에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하는 바이다. 참가하실 분은 이상훈(012-376-7376)에게 연락하면 된다. 고려대의 <사람과 사람>은 격주로 진행중인 서울대와 연대의 번영모임에 함께 참여할 예정이고 나머지 주에는 독자모임을 갖는다. 고려대 하이팅!

관악, 신촌, 안암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001>의 (개인적 입장으로는 숫자가 좀 올라가도 될 것 같다고 느끼지만..... : <마음001>의 '001'은 100을 기준으로 본 우리나라의 동성애자 인권의 수치이다.) 창단 멤버 정현수입니다. 제 자신을 감히 창단 멤버라고 하기에 뭔가 속스러움을 느끼며 저희의 첫 모임 준비호가 배포된 후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던 모임 <마음001>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일단, 전 올해 3월에 막 우리 학교 문을 밝은 새내기이고, 적어도 모든 사회적 억압과 편견에 자유롭고 저항적인 사상을 제공해 온 대학이라면 동성애 관련 인권모임이나 문화동아리 역시 존재할 거라고 굳게 믿었던 꿈(?)했던 철부지였습니다. 물론 유독 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 사회관념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침묵에 곧 답할했고, 자유로운 모든 것이 공존할 것 같았던 곳에서의 또 다른 보수와 편견의 벽의 높이를 새삼 실감하게 되었죠. 아직은 시기상조인가 보다라든가 개인적 문제라 접어두고 나름대로의 여러가지 활동을 통해 대학생활에 슬슬 적응할 즈음, 현재 우리 모임의 대표간사인 이정우 오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저보다 훨씬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선배님이었고, 마침 저와 같은 입장에서 제가 찾아왔던 모임을 준비하려고 하셔서 너무나 기쁘게, 동시에 절박하게 매달리는 심정으로 함께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5월이었고, 저희 첫 소식지가 배포된 것이 5월 29일. (모 언론에서는 그날을 '서울대 동성애자 모임 드디어 정식발족' 이라고 물론 기분은 좋았지만 웃지 못하게 보도했던) 지금은 9월이니까, 저희 모임은 그야말로 작게 시작한 아직까지 계속 신입 회원이 들어오고 있는 얼마 안된 새 모임입니다. 한 이름 모를 학우가 '지네들끼리 옛날부터 몰래 모여 온게 이제야 정체를 드러낸 거지.' 라고 한 말에 바로 옆에서 뭐라 설명해 줄 수 없어 이 지면을 빌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임 4개월째인 지금, 아직까진 작은 모임이지만 생각보다 모임에 대한 반응이 큼에, 약간의 자부심과 당혹감 그리고 부담감을 가지고 말합니다. 처음엔 학보의 느티나무골 지면을 통해 모임알림공고를 게재하려고 했던 것이, 대자보에도 썼지만, 말도 안되는 이유로 계속 거절을 당했고 (교수님들은 우리모임이 무슨 난교집단 정도로 생각했는지.) 결국 자생적인 모임 준비호를 만들어 오빠와 제가 돌리는 방법뿐이 없게 되었습니다. 학교 학부생들만 2만인데 1천 5백부 정도의 소식지로 얼마나 이 모임에 대해 알릴 수 있을 지 막막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이라도 우리모임 절실히 필요하는 학우가 있다면 분명 의미 있는 일일 것이라는 믿음은 저에게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실 이 소식지가 배포되기도 전에 그 내용에 관한 특정인들의 반감으로 모두 폐기되어 버릴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어느 정도의 예상은 있었지만, 학교 내에서 뿐이 아닌 외부 언론에서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많은 반응을 보내왔고, 그만큼 소통의 기회도 많아 졌습니다. 각종 매체 기자들의 흥미꺼리, 이성애자들과 특히 페미니스트들의 학문적 관심꺼리로서 많은 교류가 오갔습니다. (특히 저와 밤새 전화로 토론, 대화를 나누었던 몇몇 학우들. 이젠 저는 그 때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힘이 되었거든요. 다시 연락을 기다립니다. 레즈비언 문제로 상담 혹은 문의하실 분은 정현수(012-844-7137)에게 연락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기다렸던, 물론 예상한 대로 소수지만, 저와 같은 성적 정체성으로 고민하던 학우들과의 만남, 아직 나실 용기는 없지만 힘이 되었다고, 고맙다고 메시지로 남긴 학우들의 따뜻한 격려. 예상보다 많진 않았지만 역시 어쩔 줄 모르겠던 뿌리 없는 적대심과 조롱까지도. 심지어 제 개인적 문제까지 지적하고 걱정해 주시던 분들. 모든 것이 인간적인 관심의 접근으로 생각 되어 기쁩니다. (다음 기회에는 이들과의 대화와 토론, 이들이 우리에게 궁금해

한 것들에 대한 것을 정리하여 게재할 생각입니다. 하여간 이제 이 모든 움직임. 소통이라고 부르고 싶은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우리 <마음001>의 문을 두드려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직 이 모임에 대해 모르고 계시는 관악의 게이, 레즈비언 학우 여러분께도 이 소식지가 닿고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로 모임에 들어온 학우들도 소식을 지를 구할 수가 없어 알고도 연락처 알기가 힘들었다는 푸념을 들어서.)참고로 우리 모임과 함께 정식으로 소식지를 발간하게 된 연세대학교의 <컴투게더>와 새로이 발족하는 고려대학교의 <사람과 사람>의 연합모임 토의에서 합의된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관한 자료를 제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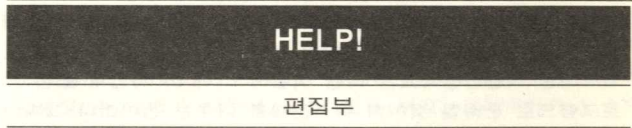
1. 대학 공동체내에서 동성애 인권운동 조직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동성애라는 성적 정체성의 사회적 의미를 재구성하자.

<문제제기>

- 동성애에 관한 사회적 낙인을 어떻게 극복 할 것인가?
- 동성애자로서의 각 개인의 정체성과 그가 속한 공동체와의 진보적 관계란?
- 대학 공동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동성애 운동의 방향은?
- 동성애자이외의 성적소수집단을 (예를 들면 흔히 여장남자 혹은 남장여자로 불리는 이성전환주의자 transgendered 같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동성애 문제로 고민하는, 대학생이 아닌 청소년이나 사회인들의 구체적 문제는 무엇이며 대학 공동체의 모임으로써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2. 연합 모임의 공동 활동 내용.

- 동성애자 문제관련 정기 토론회
- 동성애자해방운동 관련자료 공동 감상회
- 캠페인 활동
- 외서 번역, 발간
-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 활동



현재 대학동성애자소식은 회원들의 각출과 비회원분들이 보내 주신 후원금을 통해 어렵게 발간되었습니다. 다음호부터는 서울지역의 여러대학에 배포할 수 있도록 발행부수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자금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소식지 발간과 인권운동관련 자료구입 및 확보에 쓰입니다. 여러분의 조그마한 정성이 우리대학사회의 동성애자인권운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재학생 및 졸업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금액: 1000원에서 무한대  
계좌번호: 제일은행 275-20-021430 임근준 앞.

시도하기 또는 자유로워지기:  
손준수

마음001에 연락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전공시험 한과목을 남겨둔 어느 흐린날이었다. 5월 칸막이, 그곳엔 나처럼 시험이 늦게 끝난 사람들 뿐, 대부분의 칸막이는 텅텅 비어 있었다. 며칠 전까지 저 자리를 뿔뿔이 채우고 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답답함은 풀리지 않고 나는 우두커니 앉아서 누군가 화이트로 적어 놓은 시답잡은 낙서들을 응시할뿐, 무력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렵게 알아낸 뽀뽀번호를 되뇌이며 봉천동으로 향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콜라를 주문했다. 번호를 눌렀다. 손가락이 저 혼자 떨고 있었다.

0.1.5.3.3.8.0.5.5.6.

자리에 돌아왔다. 10분..... 20분..... 연락은 오지 않았다. 실새없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돈을 지불하고 나갔다. 남자. 여자. 그들은 즐거워 보였다. 나는 왜소했다. 또다시 질문. '여기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10분 더 기다려 보기로 결심할 즈음, 연락이 왔다. 그 목소리는 너무 크고 당당했다. '제가 이정우 입니다.', '혹시 게이이십니까?', '반갑습니다. 무척 힘이 되는군요.' 사실 전화연락을 시도할 때만 해도 이 모임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만나서 이야기하고 헤어진 후, 같이 활동해도 좋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짧은 시간이 흐른 지금,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알고, 힘을 얻는다. 어쩌면 다시 세상에 대해, 삶에 대해 웃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 댓가로 시련을 겪을 수도 있다. 언젠가 부모님과도 심하게 갈등하게 될 것이다. 과연 내 정체성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희생해도 되는 것일까? 그것은 손익계산 차원이 아닌, 정당성 문제였으므로 나는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고서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 삶에서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으리라는 점이었다. 자유란 그다지 달콤하지도 멋있지도 않은, 황량하고 쓸쓸한 어떤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 자유를 향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시험했고, 이제는 내 차례인듯 싶다.

살아나가기. 살아나가기:  
윤기현

하드 디스크와 다이어리에 흩어져 있는 내 글에는 짹짹막막한 단상들이나 갑자기 떠오른 혹은, 그날 들은 인상깊었던 단어들의 나열이 많다. 그 중 가끔 반복해서 등장하던 단어들. 살아나가기. 살아나간다는 것이 벽쳤나보다. 표면적으로 살아나가기라는 다섯글자이지만 그속엔 언제나 '어떻게' 라는 고민이 숨어 있었는지 모른다. 고등학교 공부하면서는 대학가서 고민하자. 하며 늘 쉽게 피해가 버렸지만 대학와서도 그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나를 때릴게 만들었다.인간의 다양한 영역 중 한 부분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다른 나를 키우자라고 위로하지만.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해볼 수가 없다는 절망은 어느 순간엔가 뒤흔쳐나와 다시 쑥셔넣으려 안간힘을 써도 결국 헤어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것은 나에게 하나의 방어벽이었다.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 부분에선 뒤로 물러설 수 밖에 없었다. 물론 그런 것이 힘들겠지만 나만큼 힘들진 않을 것이다. '너희들

은 모른다. 그 힘들음'하며 나를 국외자의 위치에 세웠다. 가장 큰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더했을 것이다. 다른 모든 것들이 별문제가 아니게 할 수 있는... 그 뒤로 숨고... 나의 무책임의 핑계가 될 수 있는 방어벽. 그 방어벽이 없어진다는 것이 두려웠을 지도 모른다. 호출기 번호를 앞에 놓고 망설였다. 나 자신 역시 동성애자임에도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괜히 두려웠다. 그리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내놓고 다른 이를 만나본 적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처음 사람들을 만나러 가며 얼마나 떨렸는지. 그 어색함. 지금 생각해보면 우습기도 하지만. 그들은 당당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사람들이었다. 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도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내게 큰 충격이었다. 더이상 나만의 특수한 운명인 것처럼 생각하고 비장함(?)을 부여하고 고민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방어벽 뒤로 숨는다는 것이 사회의 장벽 이전에 내가 먼저 나를 소외시키는 거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다른 이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이유로 방어벽 뒤로 숨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외자로서의 내가 아닌 다만 다른 특성을 가진 사회의 일원으로서 나를 느낀다는 것 역시 색다른 경험이었다. 물론 우리사회에서는 그것을 다만 다른 문제가 아니게 하지만. 나의 힘들음의 큰 이유는 늘 거짓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동성애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당당히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동성애 자체가 금기어였고 부정적인 이미지 뿐이었다. 그래서 대학신문에 난 모임결성에 관한 기사는 정말 충격이었다. 공론화가 되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커밍아웃도 나의 선택지에 올려 놓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했다. 더 이상 다른 사람 행세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물론 나 자신이 더 크고 자유로워진 이후여야 겠지만. 전에 동성애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논문을 읽은 적이 있다. 그들에게는 자기실현과 사회적 소외, 자기소외와 사회실현 들 중의 선택의 갈등이 있다는 내용의. 평생 숨기며 살거나 드러내고 배척받는 선택. 이 두가지 괴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사람들의 인식이 변해야 할 것이다. 다름을 그냥 다름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만 된다면.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의 괴리는 너무나 크다. 게이라면 여자같거나 적어도 여자라고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본다. (트랜스젠더드를 비하하려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다른 개념이니까 구분해야 한다.) "같은 성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 외의 다른 문제는 모두 부차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싶다. 사람들이 먼저 떠올리는 이상한 상상들..... 그러나 이성애자 간에 일어나는 많은 사랑의 유형을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온당치 못한 것인가. (상대와 사랑에 빠질 때 사람들은 질삽입성교를 먼저 떠올리는가? 그렇지 않다. 물론. 또 만약 그렇다면라도 첫 눈에 반하는 낭만적 사랑이라는 치장의 개념이 있다.) 이렇게 별기만한 사람들의 생각들에도 힘이 되었던 어떤 형의 말이 있다. 역사 속에서 여성이 참정권을 얻은 것이 근래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결코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여성은 그러한을 자기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모성의 결여 등)에서 원인을 찾으려 했다. 세상은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는다..... 처녀성을 잃고 자살하다. 지금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다. 인식의 변화라는 것.....

.....어쨌건 나는 아직도 살아나가기를 고민하고 있다. 아직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전의 내 안에서 맴돌던 고민에서 한 발짝은 앞으로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 살아나가기. 건 강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나가기.....

**미래의 해결점을 찾아서:**  
김환희

공포란 무지의 소산이다. 현대 흔히 무지란 배우지 못함의 결과 아니라 배우지 않으려는 태도 또는 보거나 듣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무지한 자가 권력(그것이 정권이든 군주이든 도덕이든 지식이든)을 잡았을 때 탄압이 시작된다. 이러한 탄압은 한 사회가 보여줄 수 있는 애정과 여유의 크기에 정확하게 반비례한다. 어쨌든 탄압이란 무지한 권력이 공포를 느끼는 대상을 향해 행사하는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힘인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무지한 권력이 행사하는 탄압과 인권의 문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뿔뿔이 떨어 수 없는 관계가 된다. 역사 이래로 권력과 그 권력에 짓밟히는 희생자는 수많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힘이 있는 자는 힘이 없는 자를, 돈이 있는 자는 돈이 없는 자를, 지식을 소유한 자는 지식에서 소외된 자를, 그러한 탄압은 언제나 비이성과 광기를 동반했고 수많은 살상과 피와 감옥을 불렀다. 우리는 그것의 역사를 연구한다. 그리고 거기에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이니 하는 명칭을 붙여 그러한 학문들을 신성시한다. 현대 그러한 학문을 숭배하는 자들이 은연중에 또다른 탄압을 낳는다면? 그리고 그러한 탄압의 명분으로 도덕이나 종교나 윤리의 점잖은 깃발을 내세운다면? 세상은, 마녀사냥이 횡횡하던 중세때나, 산업자본주의의 미명하에 여성을 '집안의 천사'로 가뒀 두었던 19세기 혹은 그 이후에 메카시즘의 바람으로 미대륙 전체를 공포로 몰아 넣었던 20세기 종업에서 한 발짝도 나아진 것이 없는 것인가? 다 알고 있다시피 20세기가 끝나가는 현대에도 인권의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다. 아니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어느날 갑자기 내가 그 사각지대에 발을 들여 놓은 힘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두가지의 해결책이 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숙명의 탓으로 돌리고 조용히 숨어 지내며 불교적인 열반이건 도교적인 선이건 나름대로 피학의 미학을 개척해 나가는 것. 하나는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와 그것을 탄압하는 존재와의 관계를 규명하려 애쓰며 투쟁(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해 나가는 것. 물론 전자가 정신적으로도 좋고 또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 선택은 자유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랜 기간을 방황했다. 부모님과 친구들조차도 완전한 타인으로 느껴며 살아야 했던 고통스런 시간이었다. 하지만 개인적인 숙명의식과 절망감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나의 목소리를 찾는 것,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을 찾는 것, 그리고 그러한 상호간의 이해를 하나의 힘으로 완성시키는 것.

**존재하지 않는 이들?:**

최선욱(서울대 인류학과 대학원)

내겐 특이한 친구들이 몇 있다. (특이하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은 그들을 자신과는 다르게 보는 것같아 이러한 말을 쓴다.) 그들은 소위 언론에서는 '동성연애자', 거리의 욕으로는 '호모새끼'라 불리는 이들이다. 물론 내친구들은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 이 친구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게이'라 한다. 나는 이들이 언제부터 내 인생에 침범해 들어왔는지를 분명히 기억한다. 연애이란 대개는 슬그머니 시작된다. 언제 그를 처음 만났는지, 옛날 그 모임 그 자리인지 아니면 다른 자리였는지 가물가물하다. 다만 언젠가부터 어쨌든 저사람은 나와 연관된 사람으로 자리잡는 것이다. 그러나 가끔 그런 틀을 뛰어넘는 만남들이 존재한다. 누구나 아주 강렬한 인상으로 누군가를 처음 접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는 법이다. 동성애자라는 이름의 일군의 사람들이 존재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의 그 충격을 난 똑똑히 기억한다. 약 3년전이었나? 어느 친구와의 술자리였다. 그 친구는 심심풀이로 내게 자신이 읽은 논문의 요지를 간략히 설명해 줬는데 그건 어느 외국 도시의 경관에 미친 동성애자들의 영향에 대해 기술한 것이었다. 간략히 소개하자면 지금은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어느 미국의 도시에서 동성애자들이 도시외곽에 자신들의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가족이 없어 자신들이 번 돈을 모두 자신과 자신의 파트너를 위해,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 이전에는 빈민가였던 공간을 개조하고 꾸미는데 쓰게 되었고 따라서 이전과는 달리 오히려 도시중심보다 도시외곽이 훨씬 쾌적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동네가 오히려 부유층들의 공간으로 점점 바뀌게 되고 다시 동성애자들은 여기에서 점점더 외곽으로 쫓겨나면서 계속해서 도시경관을 바꾸게 된다는 그런 식의 논문이었다. 사실 이걸 그다지 정확히진 않다. 왜냐면 나는 그때 이 논문자체보다 그속에 등장하는 동성애자들에 훨씬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난 한번도 그들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물론 난 그런 사람들이 이 지구상 어디인가 있다는 사실쯤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건 때로 해외토픽란이나 은밀한 성적 농담의 언저리 어디쯤에서 등장하는 얘기였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막연한 소리였고 우리사회의 거의 모든이가 그렇듯 난 한번도 그들을 실제적인 범주집단으로 상정해본 적이 없었다. 우리사회 어디에도 그들은 없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없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도 그들을 하나의 범주집단으로 생각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여학생끼리 손잡고 가는걸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고 나이많은 노총각들이 같이 사는걸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누구도 내게 그런 사람들에 대해 이상한 의심을 품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았다. 요컨대 우리는 'homosexual'한 사회가 아니라 'homosocial'한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도 아주 대단한 힘을 가진 하나의 사회집단이라는 그 이야기는 나의 사고체계엔 '동성애자'라는 범주를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3년후, 지금 나는 그들과 그들의 삶을 대상으로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논문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동성애자 친구들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여러가지로 나를 놀라게 했는데 무엇보다 그들은 아주 밝았다. 무슨 섹스토크롬으로 묘사되는 TV의 어둡고 침침한 화면밖에서 그들은 상상으로 밝다. 조금만 그들과 있어보면 '밝고 건전한 시민'이라는 조금은 유치한 타이틀이 그들에게도 어울린다는 것을 알게 된다. 동시에 그들은 진지하다. <상처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노래가사처럼 그들은 동성애자의 존재조차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다. 사회에서 받은 상처만큼 자신의 생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한다. 내 친구들은 이제 그 자신을 인정하는 법을 다른 고립되어 있는 친구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것같다> 아마도. <마음001>이 생기고 난 뒤 얼마동안 난 참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도서관앞 빨래줄에서, 통신에서, 그리고 버스안에서. 또다른 일군의 그 친구들은 놀라기도 했고, 때론 분노하기도 했다. 게이를 하나의 정체성으로서의 '동성애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동성연애자'쯤으로 매도하는 이 사회에서 - 얼마전에 소위 진보적 시사지임을 주장하는 한겨레21에서 이 단어를 발견하고 난 참 안타까웠더랬다. 내가 이성연애자가 아니듯 이들도 동성연애자가 아니다. - 난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나의 '게이' 친구들을 이해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물어보라, 스스로에게, 당신은 자신의 존재자체가 원천봉쇄당한 사회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은 분명히 이땅에 '있다.'

**성적지향성 전환치료의 실제와 윤리**

The Practice and Ethics of Sexual Orientation Conversion Therapy.

더글라스 C.헬드먼 Douglas C. Haldeman

이우연

\*이 논문은 1994년 미국심리학회 임상심리학회지(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에 실린 논문을 번역한 글입니다. 1994년 62호지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정신건강(Mental Health of Lesbians and Gay men)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번역되는 저희 소식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연구에 대한 학자와 연도는 생략하였습니다. 읽으신 후 의문이나 거나 의심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1.정신병리학의 최근 역사와 성적지향성 Sexual Orientation의 정의**

1973년 정신의학회의 정신진단통계편람(DSM II,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에서 동성애가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들은 여전히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부정적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게이의 경우 레즈비언보다 더 반감을 사고 있는데, 게이가 더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성차별적 사회에서 게이와 약간의 여성성을 지녀도 레즈비언이 남성성의 경향을 가지는 것보다 더욱 혐오받기 때문이다. 물론 성정체성에 관한 확실하고도 뚜렷한 근거는 없다. 단지 한 사회에서의 성고정관념에 의한 것일 뿐이다. 다른 여러 조사에서도 일반대중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가 성적지향성보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잘못된 인식에서 주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가 무슨 여자가 할 일을 해" 또는 "저 남자는 꼭 여자같다"식의 남성 중심적 사고를 그대로 게이-동성애자의 성적지향성은 성역할과는 상관없다-들에게 오인하는 것이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의 연구에서는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사이에서 심리학적 적응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미 대중과 전문 정신건강학자들에 의해 존재하고 있고 만들어진 부정적 태도들이 동성애자들에게 불명예를 주고 있으나, 동성애자들의 상황 대처 능력은 주목할만 하였으며, 그러한 적응력은 다른 소수 집단의 정신건강에도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동성애의 연구를 하면서 심리학자들 간의 가장 논점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성적지향성 Sexual Orientation의 정의이다. 성적지향성은 하나의 연속체적인 입장을 취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이성애의 여자와 남자, 양성애의 여자와 남자, 레즈비언 그리고 게이와 같이 분리된 집단으로 구별하여야 하는가? Kinsey의 경우에는 성적지향성을 스펙트럼 식의 연속체로써 평가하였으며, 조사에서 남자들의 경우 50%가 극단적인 이성애자이며, 37%가 적어도 한번 이상은 동성과의 성 경험이 있으며, 13%가 동성과 성경험에 대한 상상은 하였으나 경험은 없으며, 10%가 청소년기에 동성과의 성경험이 있으며, 4%가 극단적인 동성애자임을 밝히었다. 그렇다면 성적지향성은 선택인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또는 아동 초기에 시작되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레즈비언의 경우 성적지향성을 정치적, 사회적 선택으로 보고 있고, 게이의 경우는 본질적 - 생득적이라는 개념과는 다르다 - 인 측면으로 파악한다. 그 조사로도 레즈비언의 경우에 63%가 레즈비언을 선택하였다고 하며, 28%가 본질적이었다고 하며, 11%는 확실치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성적지향성에 대해서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그 의미가 약간씩 다르다. 미국심리학회의 레즈비언 & 게이 위원회(CLG, Committee on Lesbian and Gay Concerns)에서는 레즈비언과 게이의 정의는 그 사회와 문화가 발달해 가면서 같이 의미를 공유하고 정의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것은 반드시 성적 행동과는 구별되어야한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동성과 연애를 하면서 그들 자신들을 결코 동성애자라고 생각하

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성적지향성 모델 역시 다차원적이어서, 성적 정체성(나는 레즈비언이다), 성적 행동(나는 여자와 연애를 한다), 커뮤니티 참여(나는 레즈비언 사회의 일원이다) 등의 여러 차원이 있다. 따라서 동성애자이면서 레즈비언, 게이 커뮤니티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양성애자 bisexual 들은 이성과의 연애를 하나 레즈비언, 게이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남기위해 이성과의 연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CLGC에서는 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일반적 성 gender 을 나타내는 것과 성행동을 의미하는 성 sex 이 성적지향성을 얘기할 때와 혼동되지 않기를 주의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혼동은 이성애적 언어 사용의 편향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커밍아웃(coming out: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힘)에 대한 연구 결과는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힌 자들이 더욱 자신감이 높고 정체성이 안정되어 있으며, 덜 불안해 하고 덜 우울해 하였다. (위에서 나온 각각의 개념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와 토론을 나중에 나누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성적지향성 전환치료?**

100년이 넘게 의학자와 정신치료가, 종교자들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원하지 않는 성적지향성을 수정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방법은 정신분석적 치료, 기도와 영적인 간섭(관여), 전기적 충격, 약물 치료, 호르몬 투여, 성형수술, 자위행위의 역조건형성(혹시 파블로프의 종이 울리면 침을 흘리는 게에 관한 조건형성 실험을 알고 계십니까? 혹은 양들의 침묵을 보셨는지요? 그러한 식으로 동성에 대한 성기의 발기와 자위를 기계적/조작적 조건형성으로 이성애에 대한 흥분으로 역조건형성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춘굴 방문, 과도한 자전거 타기(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흔히 성행위의 열광과 그 흥분의 유사성을 자전거 타기와 비교하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등이 있다. 최근의 전환 치료는 원치않는 동성애인 경우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는 경우에 행하여 진다. 비록 동성애가 오래전에 정신질환에서 제외되었으나 그러한 동성애자들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치료자들이 여전히 동성애를 질환으로 오인하고 있고, 그 기준에서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 논문에서 그 치료의 실제와 윤리에 대해 알아보겠다. Kinsey는 동성애자를 적어도 성인 생활의 3년 동안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생각하는 자이며, 그의 평가는 주로 성적 상상뿐만 아니라 실제 성행위에 기초한다. 이러한 성적지향성을 수렴화하는 가운데에서 성적정체성이나, 사회적, 정서적 요인들도 도입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성적지향성 전환 치료에서는 사회-성적인 면이나 인지적인 면보다는 성적 상상과 행동적 면에 집중되어 있다. 성적지향성은 또한 순간적인 것이 아닌 커밍아웃 이전부터 이성애적 사회에서 생활전반에 걸쳐 발달되어 온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전환치료로 인하여 그동안 연속적인 과정에서 굳어온 그 정체성-사회성을 바꿀 것인가?

**3. 심리학적 전환 치료 프로그램**

성적지향성 전환의 정신요법의 근본 가정은 동성애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조건을 두고 접근해 간다. 전환 프로그램의 두 개의 근본 가정으로 동성애자는 비정상적인 아동기를 보내왔다는 것과 동성애는 잘못된 학습의 결과라는 것이다.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동성애가 과잉애착 모성애와 부성애의 결여로 나타난 결과라고 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검증이나 타당도가 없으면서도 임상 현장에서는 오직 그 가정에 기초하여 치료를 시행한

1995년 6월 26일 기자회견

다. 전환 치료를 시행하는 임상전문가들은 동성애적 삶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가정과 비정상적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 속에서 많은 동성애자들의 성적지향성을 바꾸었다고 하나 실제로는 그들 중 반 수 이상이 양성애자였으며, 또한 앞에서 제시한 두 가지 가정에 기초한 실증적인 치료 효과의 결과가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전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일치점이 없다. 조건형성 행동 치료에서는 동성애가 잘못된 학습의 결과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설계한다. 결국에 역조건형성을 시도하는데, 즉 이성애에 대한 성적 흥분을 유발시키기 위해 조작하는 것이다. 전환 자극에는 동성의 누드 사진과 동성연애의 장면을 시청각으로 보여주면서 성기에 전기 충격을 주고, 구역질을 일으키는 약품을 투여한다. 그리고 이성연애 장면에서는 그러한 혐오 자극들을 제시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하여 결국에는 동성연애와 전기충격, 구역질, 혐오 등은 서로 연합되고 동성연애를 못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이 진행되어 가면서 "동성애는 나쁘다"고 하면서 인지적으로 학습을 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최초의 물리적 생리적 혐오와 고통들은 인지적으로 바람직 하지 않음과 이어지고 결국에는 동성애를 회피하게 된다. (세뇌도 이러한 과정으로 이루어 진다) 이러한 치료에는 상당한 동성애공포증의 편견이 개입한다. 그런데 치료 후 결과에서는 그들의 동성애적 성향은 줄어들었어도 이성애적 성적 지향성은 증가하지 않았다. 결국 역조건형성과 자기보고 치료법은 효과가 의미가 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 질병이라는 모델에서 출발하였으나 그 근거와 가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그것은 오히려 동성애가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확증만 더하게 되었다. 더하여 이 결과들은 성적지향성은 전환시키기 힘든 것이며, 이 사실은 심리학적으로 새로운 연구 접근에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4. 종교에 근거한 전환치료 프로그램

최근 기독교 단체에서도 동성애자 성적지향성 전환에 대한 방법의 논의가 많이 진행된다. 많은 동성애자들은 그들의 동성애 감정과 동성애공포증적 종교 사회로부터의 인정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동성애자들은 갈등으로 기독교 지원 단체들을 찾게 되는데, 그들의 프로그램은 동성애자에게 죄의식을 심어주거나, 이성애를 추구하게 하거나, 독신으로 살 것을 권유한다. 그들의 이론적 가정은 동성애 행위를 저주하고, 기도라는 불명확한 치료 방법에 의존하여, 그들의 치료 효과 역시 입증에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심리학자들은 종교적 프로그램에 권유하기 때문에 많은 동성애자들이 그 곳을 찾게 된다. 종교적 교리에 충실한 동성애자일수록 더 낮은 자기정체감과 동성애를 더욱 죄스럽고 비난받을 것으로 보며, 그리하여 우울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한 상처받기 쉬운 동성애자들은 목사들로부터 비난의 공격이 된다. 근본주의 기독교 그룹 - Metanoia Ministers, Love In Action, Exodus International, Exit of Melodyland - 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기도 에 의한 전환치료를 하는데, 그들은 실제적인 목표로서 동성애자들에게 독신으로 살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그룹에서도 역시 성적지향성과 치료가 불안정하다는 것으로 난처해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근본주의 기독교의 프로그램은 엄청난 상징적 힘으로 사람들을 다스린다. 그러므로 그들의 강요 과정에서 동성애자들의 정신건강을 더욱 해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프로그램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영적치료와 정신치료는 치약한 이론 근거로부터 무의미한 결과에 까지 그어대한 새로운 진지한 과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가진다. 성적지향성 전환치료를 경험한 동성애자들은 이성애로 향하기보다는 갈등하고 괴로와하며, 장기적으로 성기능의 장애에 까지 이르게 된다. 따라서 이제는 문제의 요지가 바뀌어야 한다. "전환치료의 결과가 무엇인가?"보다는 "성적지향성 치료라는 이름아래 어떤 해악들이 행하여지고 있는가?"로 말이다.

5. 윤리적 고려

사회 윤리학자들은 두 가지 면에서 전환치료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첫째는 동성애가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질환이라는 가정에 치료의 조건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것과 치료자들도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불공정한 가치를 사람들에게 강요한다는 것이다. 이제 동성애는 자연에서 생산기능이 없다하더라도 생리학적으로 이성애와 같이 자연적인 것이다. (원문: Human homosexuality, despite being nonreproductive in nature, is as biologically natural as heterosexuality.) 생리학적 주장들은 동성애와 이성애 사이에서 도덕적인 구별을 할 수 없다. 마치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가 서로 다른 개인들의 개인 차를 말하는 동일한 하나의 인간성 아래 구별되는 것처럼, 동성애자 역시 하나의 호모사피엔스 아래의 넓은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며, 확실히 그것은 치료받아야 할 대상이 결코 아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동성애가 치료대상이라는 전환치료 찬성자들은 동성애를 정신병리로 파악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증거가 없고, 중요한 것은 병리학에서 기본인 그 병에 대한 원인이 동성애에게는 없다. 찬성자들은 오직 신화적인 고전 정신분석의 부모와의 관계가 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또 한 가지 결점은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사이에 심리학적 연구에서 양자를 근거지울만한 아무런 차이가 나오질 않았다는 점이다. 동성애에 대한 가치절하들이 전환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으며, 전환 프로그램들이 또한 동성애에 대한 가치를 절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동성애 성적지향성 전환치료의 존재는 사회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그릇된 의식을 강화시키는 행위이다. 사회적 요인들은 가족들의 거부, 동료들의 적대행위, 지역사회의 불인정 등이 있다. 1991년 와싱턴 주 심리학회에서는 심리학자들에게 동성애가 질병이 아니므로 전환 치료를 하지말고, 그 이외의 불안과 우울에 대해서는 사회의 불건전한 동성애공포증에 대한 상담과 적응 훈련만을 할 것을 지침하였다.

6. 생각해 볼 문제

근래의 심리학자 - 모든 학자와 지식인들이 그러하리라 본다 - 들은 스스로가 동성애에 대하여 중성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하며, 전환 치료는 그 상담자의 개인적인 권리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만약 동성애가 부정적인 면이 없다고 한다면 그 시도의 목적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또한 얼마나 많은 불만족적인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로의 전환 치료를 받고자 찾고 있는가? 심리학은 동성애가 정상임이 확증되었으나 그것을 전환하고자 시도하는 사회의 전술에 대하여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사회에서 동성애가 열등한 위치에 있지 않거나 또는 의학적인 구분지음, 범죄적인 강요, 사회적인 협정, 종교적인 공격성의 여러방법으로 계속되어지는 잘못된 판단이 없다면 결코 성적지향성 전환의 치료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성적지향성의 전환 프로그램은 임상적인 문제가 아닌 모든 면에서 일치된 기원과 공평성을 가지는 윤리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윤리적인 문제의 출발점은 사회의 은밀하고도 지배적인 동성애공포증의 측면에 있다. 그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폭력 범죄의 증거로부터 반-동성애의 정치적, 법률적 협약에 까지 이른다. 폭력의 가해자와 반-동성애 정치적 모임들은 전환 치료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동성애에 대한 가치절하를 가지고 그들의 행동을 합리화한다. 이러한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이 이성애로의 전환을 찾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 동성애공포증적 태도는 정부로부터 군대, 교육현장, 종교사회 등 모든 사회구조에서 제도화 되어있다. 심리학은 전환치료를 촉진시키고 계속함으로써 인하여 생기는 결정들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싸워야 한다. 심리학의 주제는 성적지향성을 바꾸는 것이 아닌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바꾸는 것이다.

선언문:

땅의 모든 레즈비언, 게이 벗들에게, 오늘 1995년 6월 26일 마침내 한국의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침묵의 재갈을 풀고, 자신을 비난하고 모멸했던 세계를 향해 자신의 언어로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지난 26년전 미국의 동성애자들이 뉴욕의 스톤월에서 자신들을 겨누는 폭력에 저항함으로써 수세기간 지속되어온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한 억압과 조롱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듯, 우리 역시 이제 오랜 세월동안 지속되어온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와 비난에 맞서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로 권리를 주장하려는 것이다. 그간 국내에서 활동하여 온 네 곳의 남녀동성애자 인권단체는 동성애자의 삶의 권리를 옹호하고 동성애에 가해진 온갖 유형 무형의 조롱과 박해를 물리치기 위해,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를 결성하고 함께 연대하기로 결의한다. 이로써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동성애인권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으며, 동시에 우리 사회의 삶의 질과 인권 문제에 대해 새롭게 반문하고 반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 이제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는 이 땅의 레즈비언, 게이 벗과 모든 이성애자들에게 자신의 출범을 알리며, 그 각오와 주장을 세상에 알리고자 한다.

먼저 우리는 그간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성을 부정하고 그것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던 우리 시대의 집단적 침묵을 비판하고자 한다. 동성애와 동성애자는 존재한다! 수많은 이성애자들이 생각하듯 이성애라는 성적 지향성 만이 유일하고 정상적이며, 이와는 다른 종류의 성적 지향성은 변태이고 도착이며 불안정하고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동성애 역시 이성애와 같은 독자적인 사랑과 성의 제도이며, 이를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한다. 그것은 미국과 유럽같은 서구 사회에나 존재하고 또 그곳에나 유행하는 문화가 아니다. 더욱이 동성애란 잘못된 선천적인 자질도 아니고, 나아가 성장과 교육의 왜곡에 따른 비정상적인 결과도 더더욱 아니다. 동성애를 해부하고 규명하려는 그 어떤 치밀하고 집요한 노력, 그것은 동성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이것이 많은 이들의 삶 속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려는 광기와 폭력에 다름아니다. 다시 한 번 말하거나 동성애와 동성애자는 존재한다. 따라서 문제는 우리 동성애자들과 어떻게 민주적으로 더불어 살기를 모색하는가일 뿐이다.

다음 동성애는 숨어있고 은폐되어있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기존의 언론매체를 통해 표현되고 제시된 동성애자의 삶의 현실에 대해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간 국내의 모든 매체들은 동성애자들이 자신과 성적 지향성을 함께하는 이들과의 교류를 위해 만들어낸 동성애자의 공동체를 패덕과 난행의 공간으로 호도하고 모멸하여왔다. 하지만 이는 온갖 비난과 모욕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했던 많은 동성애자들을 급치산자로 모는 것에 다름아니며,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이해하고자 애쓰는 많은 동성애자들을 자기혐오와 절망으로 몰고가는 부도덕한 행위이다. 물론 동성애자는 동성애자 공동체에 만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부대끼며 살아가는 삶의 최소단위인 가족에서부터 학교와 직장에 이르는 공공영역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동성애자는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들은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이해하고 자신과 동일한 성적 지향성을 가진 이들과 교류할 기회를 박탈당해왔다. 그리고 이는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그 어떤 관대함과 이해도 구할 수 없는 상황 탓에 비롯된 부정적 결과일 뿐이다. 우리 역시 비밀스럽고 상업화된 동성애자 공동체의 문화를 우려하고 비판한다. 하지만 문제는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긍지와 용기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우리들이 보다 자유롭고 건강하게 친교와 상호지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을 만들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다. 결국 동성애자에게 강요된 은폐와 침묵을 벗어던질 수 있도록, 동성애를 새로운 삶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문제인 것이다.

다음,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 가족의 위기, 전례없는 이혼율의 증대, 결혼제도 바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성과 사랑의 제도들, 대중문화를 에워싸고있는 성에 대한 변화와 개방의 주장들이 우리를 혼란시켜왔다. 그리고 이 모든 위기의 양상을 통해 이미 이성애적 성제도에 무조건적으로 주어왔던 가치와 권위가 심각하게 동요하고 있고, 또한 이성애가 누리왔던 그 모든 완벽한 보편성 역시 회의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이성애의 위기가 보수화되어 자신과 성적 지향성을 달리하는 집단에 대한 폭력과 증오로 귀결되는 데 대해,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에이즈공포증과 한쪽이 되어 범람하는 동성애공포증은 바로 불치의 질병을 무기로 동성애를 범죄화하고 병리화하는 것이 바로 그 대표적 본보기일 것이다. 에이즈는 동성애자의 성병도, 도덕적 재앙도, 윤리적 징벌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전염병이며, 그것은 성과 인종을 초월하여 어느 누구에게나 감염의 기회가 열려있는 질병일 뿐이다. 도리어 에이즈에 부착되어있는 그 난폭한 의미를 때어놓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질병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우리 시대의 성과 사랑에 대한 새로이 모색하고, 그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의 가능성을 개척하는 것이다.

이제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는 이 모든 문제를 정면에서 응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동성애자에게 가해진 온갖 모욕과 비난을 물리치고, 자긍심과 희망을 품은 동성애자의 시대를 열고자 한다. 스톤월 항쟁 26주년을 맞는 지금, 우리는 6월의 마지막 주를 동성애자 인권주간으로 선포하며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그 어느 때보다도 뜻깊게 되새기고자 한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견뎌야했던 침묵과 공포는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긍지와 자유의 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자유와 권리를 새로이 이해하는 역사적 시대의 빛장을 열 것이다.

동성애인권운동 만세, 스톤월항쟁만세.

1995년 6월 26일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

우리의 요구:

- 1. 동성애자에 대한 모든 인격적 모욕과 비난을 중지하고, 우리가 가진 성적 지향성을 해악시하고 부정하는 모든 의학적, 법률적, 교육적 관행을 중단하라.
2. 언론매체는 동성애와 동성애자의 인권을 무시한 그간의 보도 관행을 반성하고, 동성애자에 대한 관용적이고 민주적인 태도를 견지하라.
3. 자신의 동성애적 성적 지향성을 밝힌 동성애자들에게 가해지는 모든 종류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의 침해와 모욕을 중지하라.
4. 에이즈를 동성애자의 역병으로 호도하는 사이비 의학적 선전을 중단하고, 에이즈예방과 치료에 관련된 사회적 방역체계에서 동성애자를 특별히 관리하고 규제하여온 그간의 시도를 중단하라.
5. 동성애인권운동에 대한 사회적이고 공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동성애에 대한 관용적이고 민주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라.

1995년 6월 26일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

**이성애자와 대화할 때 반드시 지참해야 할 한 권의 책, 권터 아멘트의 '섹스 북':**

왜 이 대단한 이성애주의/가부장제 나라에서 난데없이 동성애 영화들이 호평을 받고 흥행에 성공하는 사태가 벌어질까. 또 왜 많은 이성애자들이 어떤가에 처박혀 있을 썸으로 수수방관하던 동성애자들을 자신의 면적으로 끌어내 집단관람에 매달리는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동성애 이야기'의 붐을 정착케이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해야 할까. 우리들은 이를 의미있는 문화적 징후로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한다. 돌연 이성애자들이 우리 게이들의 삶을 안타까와하기 시작했으니 만무하고, 우리들의 삶에 후한 점수를 줄리 없는 상황에서, 동성애 이야기의 흥행(?)은 자못 의미심장한 것이다. 일단 우리는 동성애 이야기에 대한 고조된 관심이 우리 사회를 엮어짜고 있는 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어떤 혼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반문할 수 있다. 이를 테면 미국에서 60년대 초엽 동성애자들에 대한 관심이 전성기를 이루었을 때, 그리고 킨제이 리포트가 어마어마한 관심의 초점이 되었을 때, 그 때에는 다 그만한 사정이 있었다. 전후 베이비붐, 가족 제도의 해체와 위기, 결혼이라는 성제도가 가지던 절대적 권위의 약화, 대중문화에 준비하기 진열된 성에 관한 이야기들은, 바로 이성애주의를 이루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되문게 하였다. 이런 사정은 우리에게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지금 우리는 어떤 성적 제도의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다. 이미 근년에 대단한 소동을 일으켰던 신세대파동이나 오렌지족 파동(?), 또 최근의 동성애 이야기 붐은, 세대와 결혼, 가족과 성이라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심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반증해 준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여기의 성에 대한 관심이 게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따져보는 지혜로움을 가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박영출판사를 통해 번역출간된 '섹스 북 Das Sex Buch'은 매우 요긴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물론 이 글은 동성애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성애주의 사회 내에서 벌어지는 성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이 빼곡이, 그렇지만 너무나 알기쉬운 우리의 이야기로 바꾸어 들려주도 있다. 아멘트 Amendt 라는 독일의 성해방운동가에 의해 집필된 이 책은, 그 간 우리가 접했던 성관련 저서들이 들려주던 한결같은 이야기들, 즉 성이란 오직 출산과 피임, 오르가즘에 관한 이야기일 뿐이라는 식의 구성과 관계를 달리고 또 순결을 육박지거나 혼전성교나 혼외정사를 비난하고 중절을 저주하며, 동성애를 대단한 죄악인 양 간주하는 기만적인 도덕주의적 태도도 말끔히 가셔있다. 아멘트는 이 책에서 성을 은밀한 침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이야기로 끌어내, 여러 명의 평범한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 꼼꼼하고 친절하게 가르쳐 준다. 물론 이때 그의 태도는 성전문의의 가르침도, 카운셀러의 훈계도 아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지요"라고 말하는 그의 태도는 성에 관한 우리의 고식적인 태도를 삶에 대한 민주적인 태도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준다. 특히 적지않은 비중을 할애해 동성애자에 대한 탄압과 동성애자에 대한 거부와 오해를 비난하는 그의 태도는, 이 책이 취하고 있는 여러가지 진보적인 입장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성에 관한 '자기 반문'이 완곡하게 혹은 비활어지게 표현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 자신들이 들여다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빗장이 채워져 있는 그 성이라는 요새에 차마 다가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이 때 우리 게이들은 어떤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게 좋을까. 우리를 가두고 있던 예전의 여동과 침묵 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우리의 이야기를 이성애자들 자신의 삶에 대한 질문으로 바꾸

어 내야 할까. 당연히 우리는 후자의 방식을 택해야 한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성을 사회적 제도로서 바라보는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섹스 북'은 더 할 나위 없는 요긴한 지침이 되어 줄 것이다.

**어느 마르크스주의자의 동성애자에 대한 변명?, 노엘 헬리팩스의 '동성애자해방운동과 마르크스주의':**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가 주관한 일일호프, 바자회, 베틀 시장에 왔던 사람들은 '동성애자해방운동과 마르크스주의'라는 책을 울며겨자먹기로 사간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3800원 짜리를 3000에 팔았으니 싼 맛에 샀을런지도 모른다.) 제목만 보면 동성애자해방운동과 마르크스주의가 상당히 공포된 연대의 위치에 있는 듯이 보이지만 애석하게도 역사는 그렇지 못했다. 스탈린 시대, 수많은 동성애자들은 수용소에서 죽어가야만 했다. 수용소의 악몽은 히틀러의 독점상품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쿠바의 카스트로도 동성애자들을 자본주의의 쓰레기들로 몰아세워 수용소에 처박아 넣은 바 있다. 그리고 중국의 동성애자들이 수용소에 가두어졌다는 악몽같은 소식을 들은 것은 바로 작년이였다. 엠네스티에서는 동성애자들의 불법적인 구속에 대처하겠노라고 말하고 있건만 실제활동은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미국의 동성애자인권운동가들은 아시아의 동성애자인권상황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관에 마르크스주의가 동성애자해방에 대해 이러한 저러공하면 좀 우스워 보이기가까지 한다. 하지만 필자는 초기 불세비키가 가졌던 입장 - 특히 영겔스의 가족주의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동성애자해방이 왜 마르크스주의를 통해서 가능케되는지를 지나치게 도식적이다 싶은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으로 풀어나고 있다. 하지만 은폐된 초기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동성애자해방운동에 대한 재평가나 핑크 이코노미에대한 분명한 비판은 미국중심의 정보에 묻혀 있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학생운동이나 그밖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동성애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작은 가이드 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책은 무척 반가운 것이 아닐 수 없다. 관악의 사회과학서점인 '그날이 오면'에서 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의 소식지 배포를 거부하고 페미니스트들이 동성애자인권문제에 대해 등을 돌리는 어이없는 일이 다반사인 오늘의 현실에서 볼 때, 동성애자해방운동이 전체 변혁운동에서 어떤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이제는 시작해야 할 것이다. 책갈피 출판사는 그간의 침체를 딛고 책갈피 열린책 시리즈로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열린책 시리즈는 계속해서 발간될 예정이며 조만간 '게이 억압의 원천(가칭)'이란 책도 출간될 예정이라는 데 번역이 아직 끝나지 않아 아무래도 좀더 기다려야할 모양이다. 어쨌거나 이 소식을 본 사람 중에 스스로를 진보적이라 규정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보는 것이 몸에 좋은 책임을 강권하는 바이다.

**들어가며**

동성애자의 삶이 강제적 이성애에 의해 그 실제 자체를 저당잡히듯이 마찬가지로 동성애문화라는 것은 대중문화 속에서 그 정당한 자리를 할양받아 본 적이 없다. 그나마 최근의 활발한 동성애자인권운동에 힘입어 여러사회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문화예술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동성애자의 삶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꼭 최근의 '결혼 피로연'같은 영화나 키스 하림의 작품만이 동성애문화라고 본다면 그것은 편협한 시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은폐된 동성애자의 삶은 때로는 보다 높은 차원의 미학을 가능케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루 다 언급할 수 없으리만치 많은 문화예술이 동성애미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스 시대의 동성애문화와 그에 바탕을 둔 고매한 정신과 남성의 육체에 대한 탐나, 그리고 그 속에서 탄생한 아름다운 조각예술은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는 지면과 시간의 절대적 부족을 막을 수는 없다. 기록교가 삶의 질서를 지배하던 시절에도 동성애문화는 그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 그 첫째를 꼽자면 단연코 다 빈치를 들 수 있다.

**미술에서의 동성애**

레오아르도 다 빈치(1452-1519).  
다 빈치는 이를 그대로 이탈리아 투스카니의 지방인 빈치에서 태어났다. 베로치오라는 화가의 수하에 14살 이래로 도제로 일해오던 다 빈치는 24살 되던해에 다른 3명의 도제들과 함께 기소되어 징계를 받았다. 그 이유는 17살의 자코포 살타렐리라는 모델과 '무신론적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1482년에 그는 밀라노로 이주하여 본격적인 명작들을 제작하기 시작한다. 그는 무척 비밀스러운 삶을 살았다. 심지어 그의 노트들은 미러스크립트(좌우가 뒤집힌)로 되어 있을 정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사생활에 대해서 쉽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그의 조수였던 케사로 데 세스토, 볼트라피오, 안드레아 살라이노, 그리고 젊은 철학자였던 프란세스코 멜찌(다 빈치의 진정한 연인이 되었고 그는 다 빈치의 법정 상속인이 되었다.)에게 헌신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역사 속의 예술가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그는 그의 성적 정체성을 예술로 역할했고 흔히 우리는 그것을 승화라고 부른다. 이미 밝혀진 사실이지만 모나리자는 다빈치의 자화상이다. 그의 자화상 스케치와 정확하게 일치하며 단지 주름과 검버섯을 제거한 모습일 뿐이다. 그는 왜 이 그림을 4년이나 그리다가 미완성인채 놓아두었을까. 그는 아마도 그의 동성애 성향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자신이 여자로 태어나서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결합을 꿈꾸어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상상을 그는 그의 그림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무슨 결론을 얻었길래 작업을 중단했을까? 알 수는 없다. 프로이드는 그의 에세이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그의 유년기"에서 그의 그의 미학의 기초가 호모섹슈얼리티에 있다고 분석하여 모던게이심리분석의 전형을 창출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빈치의 노트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나는 아주 어릴적에 탐욕스러운 누군가가(vulture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문맥의 뜻이 달라진다. 동성애자라는 개념이 없던 시기이므로 프로이드의 해석과는 달리 다 빈치는 vulture를 게이라는 뜻으로 사용했 것이 거의 분명하다.) 내가 요람에 누워 있을 적에 나에게로 와서 나의 입에 그의 거시기를 들이밀고 수차례 거시기를 나의 입술을 향해 세계 물아넣었던 기억이 있다."이를 프로이드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기억의 형식을 빌은 펠라티오의 망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프로이드는 펠라티오가 구순기의 만족을 대체하고자하는 욕망이라고 분석함으로써 문제를 오도하고 있다. 그

리고 잘 알려져 있다시피 어머니에 의해 억압된 성본능 덕에 동일시 모델을 어머니로 상징함으로써 아들이 동성애 성향을 갖게되며 그 동성애는 나르시즘의 한형태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프로이드의 분석에 근거해 모나리자의 신비로운 미소가 나르시즘의 산물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모나리자를 역사상 최초의 트랜스 베스티즘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것 만큼이나 우스운 일일 것이다. 어쨌거나 모나리자의 그 기묘한 웃음이야말로 QUEER SMILE(QUEER:'동성애자의'라는 뜻의 은어로 말 그대로는 '기묘한' 이라는 뜻이다.)이 아닐런지.

미켈란젤로: 그는 메디치가의 후원을 받으며 네오플라토니즘의 영향하에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네오플라토니즘은 그의 생활이나 그의 작품에나 두말할 나위없는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1532년 그가 57살이었을 때, 그는 아름다운 젊은 귀족인 토마소 데 카발리에리를 만났다. 그리고 그는 그의 남은 삶은 그에게 헌신했다. (반면 미켈란젤로는 어려서 그의 재능을 시기한 다른 소년들의 주먹질로 코가 찌그러져 평생을 의모에 대한 컴플렉스에 묻혀 살았다. 그는 소식하고 거의 금주했으며 검소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다.) 그는 많은 사랑의 소네트를 바쳤고 많은 그의 그림을 그렸으며 심지어 어느 그림에서는 자신을 제우스로 그리고 카발리에리를 가니마데의 목동으로 묘사해 놓기까지 했다. 이 두 연인은 전형적인 플라토닉 커플로서 32년간 지속되었으며 미켈란젤로는 카발리에리의 팔에 안겨 눈을 감았다. 그의 삶에서 그의 성적 정체성은 두가지로 필박받았다. 하나는 잘 알다시피 소동농들의 짓거리에 대한 명목으로의 기소였고 하나는 그가 그의 예술과 결혼했다는 명목으로의 기소였다. 즉, 그도 다른 예술가들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예술을 통해 승화시켰고 이는 다른 사람들 눈에 비정상적인 짐작으로 보였음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의 동성애 성향은 그의 남성육체에 대한 미학적 접근을 가능케 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남성조각이라 할만한 다비드가 그것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정교한 비례미와 소년인듯 하면서도 이미 강한 근육을 갖추고 있는 2중적인 아름다움.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통해 완벽한 아름다움을 추창조해내도록 정교한 계산을 깔아놓은 작가의 해안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여담으로 재미있는 일화 하나를 덧붙이자면, 미켈란젤로는 자신을 괴롭혔던 주교를 자신의 벽화(시스티나 성당 벽화)에서 복속하는데 성공하였다. 주교를 심판의 날에 죄값을 치루는 죄많은 인간 군상 중의 하나로 변형시키고 (주교의 초상화와 똑같은 얼굴이다.) 그의 외성기를 뱀의 아가리에 물려 놓은 것이다. 이 악마적인 발상은 곧바로 제지당했고 외성기를 물고 있는 뱀은 그림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최근 벽화의 복원작업을 하던 도중 원래의 그림이 발견되었고 그 그림은 세상사람들을 몇백년 후에도 똑같이 경악시켰다. 그러나 교황청은 복원과정에서 다시 그 그림을 덮어 버렸고 우리는 이제 사진으로나 겨우 그 장면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원래 그 그림이 진짜 미켈란젤로의 의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반 고흐(1853-1890):**

고흐가 게이라고요? 보통 미술사를 잘 아는 친구들도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많다. 고흐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 여자를 열렬히 사랑했었고 그로 인해 큰 상처를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그의 동성연인은 다름아닌 고갱이었다. 둘은 둘간의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회의했고 끊임없이 혼란스러워했다. 우정과 연애감정사이에서 헤맸고 화가로서의 조언자와 연인으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방황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고갱은 그다지 동성애에 끌리는 타입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점이다. 고갱은

물질문명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의 아름다움을 찾고자하는 결벽 증적인 집착이 있었고 그러한 그는 고호와 유럽을 떠나버린다. 그러나 그가 찾고자한 이상향은 타히티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미 타히티사회는 서구문물에 의해 파괴된지 오래였기 때문이었다. 여자들은 백인들에게 몸을 팔아 연명하고 있었고 전에는 없던 성병과 각종 질병으로 원주민들은 이유도 모른채 죽어가고 있었다. 고갱은 타히티에서 오히려 더 끔찍한 산업문명의 얼굴을 보았고 그는 자신을 기만하기로 작정한다. 그의 그림에서 나오는 알 수 없는 악마적 분위기와 죽음의 냄새는 단지 작가의 특성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 것이다.(그의 그림이 원시의 순수성을 대표하고 있다는 따위의 영타티 해설은 미술교과서에 나오는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다.) 반면 고호는 고갱을 끊임 없이 기다렸다. 섬세하고 내성적이던 그는 매우 아름다운 작품을 남겼다. 바로 의자이다. 하나는 자신의 의자를 그린 것이고 하나는 고갱의 의자를 그린 것이다. 자신의 의자는 자화상이라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미술사에서 보자면 보다 중요한 작품이 고갱의 의자를 그린 작품인데 이는 알레고리의 능동적 사용의 전형이기 때문이다. 고갱의 의자는 매우 남성적인 것으로 그려져 있으며 그의 책이 얽혀져 있다. 실제 고호는 그의 의자에 그가 두고간 책을 올려놓고 기다렸다고 한다. 그리고 촛불이 밝혀져 있는데 이는 단순한 배경이라기보다는 초 자체가 남근을 상징하며 동시에 절절한 기다림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기에서 의자는 그 자체로 고갱을 의미하고 동시에 '빈' 의자는 고갱의 없음을 증명하는 역설적인 발언을 하는 도구이다. 이는 그대로 고호의 이중적 심리 상태를 반영한다.) 이미 이 그림을 그릴 당시 그는 미쳐가고 있었다. 한편으로 그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가 먹은 코발트 블루 때문이기도 하다. 그는 허기를 참지 못해 붓을 빨고는 했는데 불행히도 고호는 코발트블루에 화이트를 섞은 블루 셀리스트를 즐겨 사용했다. 코발트블루의 용제는 신경을 손상시키는 성분이 들어있었고 덕분에 그는 서서히 미쳐갈 수 있었다. (필자가 왼쪽 귀에 달고 다니는 의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고호의 알레고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커다란 남근이나 근육질의 남자가 등장하는 것만이 동성애미학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고호의 의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앤디워홀(1928-1987):**

앤디는 체코의 이민 2세로 어릴 적 그는 전형적인 사회부적응 자였다. 말을 제대로 구사하지도 못했으며 못생긴 얼굴에 지독한 근시, 가난한 환경에서 그는 완벽한 호모새끼(?)였다. 그런 그는 신격화된 대중스타들을 동경했으며 그는 그러한 대중문화 시스템에 열광했다. 그는 모든 변신과 이미지에 병적으로 집착했고 자신이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갈망했다. 그러한 비참한 자기혐오와 밀도 끝도 없는 백일몽이 그의 예술의 모든 것이다. 캄벨 수프 시리즈는 모든 모더니즘 대중의 자폐증을 대변해 주었으며 비포 앤 애프터 시리즈는 모든 사람들의 아름다워지고 싶은 변신의 욕망을 변화했다. 펠라티오 시리즈와 남장여자시리즈는 자신의 욕망을 대리배설하는 공간인 그의 작업실 팩토리의 산물이지만 사실상 그의 직접적인 본능의 고백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는 팩토리를 통해 뉴욕의 모든 쓰레기들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메머드급 스타가 되어 있었고 그럴 수록 그는 정신적으로 황폐해 갔다. 그는 목숨을 걸고 성형수술을 받았고 결코 만족할 수 없었다. 그가 사랑했던 장 미셸 바스키아가 그를 차갑게 배신하자 그는 작업의 탄력을 잃었고 87년 그는 간단한 담낭 수술을 받고는 수면 중 사망하였다. 그의 재단은 오늘날 각종 사기꾼에 의해 약탈 당하고 있으며 그의 이미지 제국은 각종 비평에 의해 난도질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럴 수록 빛나는 것은 비참하리만치 순수한 인간의 작은 소망이다. 그의 소망. 자유로운 한 인간, 사랑받는 존재이고 싶다는 소리 없는 외침이 그의 작품들이 벌이는 난잡한 이미지 게임의 유일한 답

인 것이다.

**키스 하링(1958-1990):**

키스 하링은 확실한 게이무브먼트의 아들이다. 그의 미술은 최초의 게이프라이드의 표현이었으며 그러한 발언이 어린이를 포함한 전 연령의 모든 계급을 망라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획기적인 증거였다. 그는 플라스틱 세대의 전위였고 피터팬 신드롬의 전형이었다. 그는 지독하게 미국적인 디즈니 키드였고 그는 그러한 그 자신을 아카데미한 전체함으로 포장하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줄 아는 첫 세대였던 것이다. 그러한 그의 솔직한 태도는 그의 즉흥적인 작업을 통해 빛을 발했다. 대중은 그의 유릴페인팅과 값싼 석판화에 열광했다. 그는 80년대의 스타였고 그 스스로 대중문화이자 최고의 대중문화 비판자였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물결이 출렁이던 뉴욕에서 그는 누구보다도 현기증 나는 삶을 살았다. 그는 그의 인기를 앤디 워홀만큼이나 이해하지 못했으며 뉴욕의 수많은 자유주의자 예술가들이 당해야했던 것처럼 그도 AIDS에 감염되었고 우리는 그와 때 이른 이별을 해야만했다. 프란시스 베이컨, 디에고 리베라, 메이플 스피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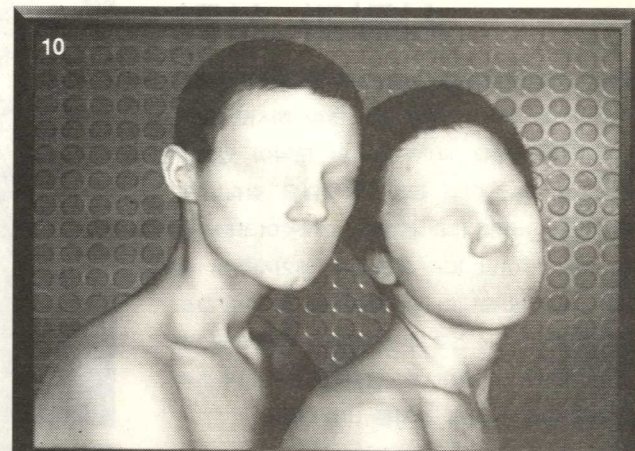
**영화 속에서의 동성애자**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영화 속에 나타나는 동성애자의 이미지만 그야말로 대다수의 이성애자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그대로이다. 이성애자들이 가지고 있는 동성애자에 대한 정형화된 상들이 별다른 재고의 시도없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지만 보다 큰 문제는 그러한 정형화된 묘사들이 대중들의 뇌리에 각인된 동성애자의 왜곡된 이미지를 확대재생산해내는 데에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우디앨런의 영화에서 흔히 보이는 뉴욕의 프루티실크패션의 게이의 모습(요란한 색의 실크 양복에 백구두를 신은 채 푸들을 안거나 끌고 다니며 루이지 골라니의 선글라스를 끼고 창백한 얼굴에 무능하고 신경질적인 인물로 묘사되는), 부르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에서 나타나는 무의지적인 존재로서의 게이의 모습(게이는 불안정한 인성의 소유자고 따라서 위험한 빨갱이? 게다가 미성년성폭행자?), 최근의 쇼쇼크 탈출에서 나오는 지독하게 가학적인 게이의 모습(게이는 감옥에서 남의 애널이나 뺨으러 각종 폭력을 행사하는 악당들? 이 영화의 3인조 게이는 성적인 추구가 삶의 전부인 변태의 화신들이다.), 펄프픽션에서 나오는 온갖 역겨움을 다 견뎌낸 존재로서의 게이의 모습(경찰관 게이와 전파상집 게이가 주인공을 지하실에 가두고 폭행하는 데 여기에서 하일라이트는 리더토이로 온몸을 무장한 사도마조히스트 게이의 등장이다. 이 모든 역겨움은 언제나 그렇듯이 주인공에 의해 결국 처단된다. 심지어 열나게 싸우던 원수도 이 역겨운 호모들 앞에선 하나가 된다.) 혹은 총알탄 사나이에서 보이는 혼란 이미지로서의 마초게이의 모습(주인공이 샤워실에서 비누를 주르려 몸을 굽히자 애널섹스를 시도하다 주인공의 정조대 때문에 실패하고 만다.)등은 정말이지 치욕스럽다 못해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모두다 언급하기엔 너무나 많은 혐오스러운 표현들이 여러영화 곳곳에 널려있다. 대부분 이러한 캐릭터들은 영화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처단된다. 우디앨런 영화에서 처럼 단순히 넘어지는 정도에서 펄프픽션의 국부로의 총알세례와 일본도의 난도질, 그리고 최후엔 불로써 정화되는 극도의 호모포비아를 반영된 완벽한 응징에 이르기까지 그 처단은 다양하다. 하지만 어쨌든 정도의 차이를 넘어서 모두 어떤 식으로든 처단 혹은 처리되어 이성애주의자들의 공포를 위로시켜주고 있다. 브루스 윌리스가 우리시대의 남성심불림은 정말 의미심장한 기호코드다 아닌가!) 레즈비언의 경우는 더 심한지도 모른다. 레즈비언은 성적 방탕의 하나로 그려지거나 아니면 남성적 지배에 대한 갈망의 투사로 그려진다. 그래서 영화 속의 레즈비언들은 범죄를 저지르며 성역할에서 경쟁심을 갖는 존재로 그려진다. 레즈비언의 드레스 코드는 따라서 대개 두가지로 결정되는 데 잘 교육받은 상류층 여성의 엘레전스한

타입이나 혹은 남장의 취향이다. 레즈비언은 한마디로 지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본받을 점은 하나도 없도록 고안되어 있다. 이렇게 게이들은 동성애에 관련된 영화들에 의해 그 이미지를 구축하고 공격받아왔으며 그것은 하나의 정형화된 모습으로 결과되고 있다. 모든 소수집단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인 정형화는 결국 대안 영화의 창출이라는 유일한 해답을 도출시킨다.(Some of My Best Friends are 같은 영화들은 게이 개인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풀어올리는 데 성공한 드문 작품이다. 그러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게이 레즈비언 영화란 얼마나 알파한가! 게이 레즈비언 영화제는 어쩌면 아프리카계 어메리칸들의 하누카 축제운동처럼 한 시대의 희극일런지 모른다. 그러나 하누카를 통해 오늘날 많은 아프리카계 어메리칸들이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의식을 배우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무언가 행동해야만 한다는 교훈을 발해준다. 게이무비페스테발인 아웃페스트의 첫 걸음은 그래서 더욱 의미 깊은 것일 것이다. 영화 속에서의 호모포비아를 더이상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자.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시각으로 그 호모포비아가 사실상 이성애주의 속에서 이성애자들이 겪는 정체성 위기의 표현이었다는 점을 깨닫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게이레즈비언문화는 대안문화가 되어야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다. 게이무브먼트에서 보자면 답은 '그렇다'이다. 그러나 예술사에서의 비언어적 담론의 구조인 시각문화예술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게 쉽게 답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언어적 담론으로서의 동성애자 혹은 동성애자문화라는 분류자체의 모순을 그대로 시각문화에 이입시키는 것이 옳은 판단인가 하는데에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날 게이무비와 게이문화, 게이사진, 등등의 게이시각문화는 게이의 사회적 인식의 틀을 어떤 방식으로든 크게 뒤바꾸어 놓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무기로서의 이용의 가능성은 우리에게도 크게 열려있으며 그러한 창작과 표현을 통한 발언은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게이프라이드 gay pride 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 대안문화로서의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몰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능동적인 실제실천, 즉, 인식의 전환과 전환을 통한 구체적 게이해방의 상,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열정적인 창작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자, 어쩌면 비로소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당신의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어차피 예술은 악조건에서 밝게 빛나는 법이니까.



1.키스 하링 Keith Haring 과 그의 작품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회적 표시 되었다. 2.직접적인 동성애이미지로 거둔 상업적 성공 - 마돈나 3.북극의 첫 번째 게이스타로 알려진 리틀 리처드 Little Richard. 그는 광기와 저항의 표시였다. 4.반미학적 냄새를 풍기는 드랙 drag 을 내세운 리바이스의 광고. 우리나라에서는 '올트'라는 패션 브랜드에서 트랜스젠더드 transgenderd 모델을 내세우고 있다. 5.컬트무비인 록키 호러 픽처 쇼 Rocky horror picture show 의 드랙 drag 이미지. (내용상 트랜스젠더드인지 트랜스베스티즘 transvestism 의 게이인지는 분명치 않다.) 6.전형적인 후투티 실크 패션 fruity silk fashion 을 입고 다녔던 엘튼 존. 7.글램록 glam rock 의 대표주자였던 데이빗 보위 David Bowie 의 양성구유적인 패션. 남근주의적 폭문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탄생한 글램록은 디스코와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들의 커뮤니티에서 탄생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8.새로운 게이미학을 창조한 로버트 메이플 샴 Robert Mapplethorpe 의 작품. 그러나 그는 아직도 보수적인 미술사학들에 의해 포르노작가로 분류되는 차별을 받고 있다. 9.자신이 바이섹슈얼 bisexual (양성애자)임을 떠들고 다녔던 R.E.M.의 리더 마이클 스타이프 Michael Stipe. 얼터너티브 록커들이 그려낸 듯이 그도 수수한 보통 노동계급 젊은이의 모습 그대로이다. 10.올해 휘트니 비엔날레에 출품된 싸미와 앤스니의 공동작 '팜과 킴 Pam and Kim' 레즈비언의 사회적 비존재를 디지털사진으로 보여주었다. 싸미와 앤스니는 샌프란시스코의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거주하며 활동중이다. 올해 휘트니 비엔날레는 보수적인 사람들에게는 악몽이었다. 행사 전체를 주관한 휘트니의 큐레이터 클라우스 커티스 Klaus Kertess 는 철저하게 소수를 향한 시선을 유지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문제를 직시하고자 했다. (전통과 가치의 수호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우습게도 클라우스 커티스에게 '게이가 휘트니를 망쳤다'라는 비난을 쏟아부었다.)

